

3 John

So the third epistle of John is now again, John addresses himself as

The elder [the presbytueros] unto the well beloved Gaius (1:1),

Probably not the Gaius mentioned in Paul's epistle to the Corinthians where he was in Corinth, and it would appear that these letters were written to those in the area of Ephesus.

whom I love in the truth. Beloved (1:1-2),

And he's talking to Gaius.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health, even as thy soul prospereth (1:2).

요한 삼서에서도 그는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1).

아마도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집주인으로 언급했던 가이오와는 다른 인물인듯 합니다. 이 서신들(요한의 서신들)은 에베소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보낸것같습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1:1b-2a).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2b).

Now there are many people who quote this scripture as a sort of promise for healing. And they twist the scriptures slightly making it really sort of God's declaration, God saying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even as your soul prospers. But this is a personal letter from John to Gaius. And he is greeting Gaius who is well-loved with this beautiful wish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As we so often in our letters writing to someone we haven't seen for a long time, I hope that this letter finds you in good health. So to use this as a promise for healing is really not scriptural, as God's promise for healing. It is the wish of John for Gaius. Beautiful wish indeed. "I wish that you might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even as your soul prospers."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병고침의 약속인것 처럼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약간 왜곡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이오에게 보내는 요한 개인의 편지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건강하고 모든것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오랫동안 보지못한 친구에게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약속으로 사용하는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이오에 대해 요한이 바라는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 □□□ □ □□□ □□ □□□□ □□ □□□□□.”

But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made between the prosperity of the soul and the physical well being. And we are discovering more and more as we study the human body that there is a very definit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s physical health and their mental well-being. We are learning how that attitude can change the body chemistry and that bad attitudes can create harmful chemicals that will attack your body physically. And there’s a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attitude and organic illnesses in many cases. The psychologist say ninety percent, I think, that they’re overstressing their side. But there is a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many illnesses and the mental attitude of the person. So there’s a correlation made between the physical well-being with the mental, the prosperity of the soul, the mind.

흥미있는것은 영혼의 잘됨과 건강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인체를 연구하면 할수록 한사람의 건강과 그의 정신건강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것을 발견합니다. 한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체내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합니다. 나쁜 태도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낼수 있으며 그로인해 몸에 신체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신적 태도와 장 질환에 뚜렷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인면을 90% 정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질병과 정신자세 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마음과 영혼의 잘됨과 육체적 강건함에는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A merry heart doeth good like a medicine” (Proverbs 17:22). You know that they have discovered that that is scientifically correct. That laughter aids tremendously in the digestion of food. You ought to have a joke book at your dinner table. Bitterness can eat at your physical being, can create ulcers, chemicals that are harmful, destructive. So it is interesting that John would mak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emotional or mental.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you may prosper and be in good health, even as your soul prospers.”

For I rejoiced greatly, when the brethren came and testified of the truth that is in thee, even as you walk in truth. An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walk in truth (1:3-4).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 17:22). 그것은 과학적으로 옳다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소화에 크게도움을 줍니다. 저녁 밥상결에

유머책을 하나 비치하십시오. 괴로움은 당신의 육체의건강을 해칠수 있으며 위궤양이나 해롭고 파괴하는 화학물체를 체내에 만들어 낼수있습니다. 요한이 신체와 감정 또는 마음 사이에 상호관계를 지어 내는것은 흥미로운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1:3-4).

I can concur with what John is saying here. The greatest joy, I think, of a teacher is to hear that their children are walking in truth. You know, to come across someone that you ministered to fifteen, twenty years ago and find them walking in the truth is just a thrill, no greater joy.

In the same way, there's probably no greater sorrow than to hear that your children have turned from the truth, got caught up in some weird doctrine, some heresy. That's painful, that hurts. But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they are walking in the truth.”

Beloved, you do faithfully whatever you do to the brethren, to the strangers; Which have borne witness of your love before the church: whom if you bring forward on their journey after a godly sort, you will do well (1:5-6):

나는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것에 동의할수있습니다. 내생각에는 선생의 가장 큰기쁨은 자녀들이 진리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것입니다. 15년 혹은 20년전에 가르친 사람을 만나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들을때 그 전률과 기쁨은 말할수없이 큼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리에서 떠나 이상한 교리 즉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는것보다 더 슬픈일은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1:5-6):

Now he's talking about Gaius's treatment of these itinerant evangelists and prophets. You've been hospitable to them. You've helped them along their way. And in this you did well. It was, and they've come, and they've told of your love. They've told of your hospitality.

Because that for his name's sake they went forth, taking nothing from the heathens (1:7).

So these itinerant prophets have gone forth in the name of the Lord and for his name's sake, but they wouldn't take anything from the Gentiles, which is in the New Testament Greek the heathen or the pagans, because in Christ, you know, they were all brothers. “There is no Jew nor Greek, Barbarian, Scythian” (Colossians 3:11). So the Gentiles referred to those outside of Christ.

이제 그는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과 선지자들을 접대하는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호의를 잘베풀었고 그들의 가는길을 잘도와 주었다. 이 일에 잘하였도다. 그들이 와서 너의 사랑을 증거 하였느니라. 그들이 너의 베푸는 호의에대하여 말하였느니라.”

□□ □□□ □□ □□□ □□□ □□□□□ □□□□ □□ □□□□□ (1:7).

이렇게 순회하는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즉 신약성경에서 야만인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안에서 그들은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 □□□□□ □□□□ □□□□□□□□ □□□ □□ □□□□” (골 3:11).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I question some of the fund raising techniques of the churches today that go to the major corporations or they go to the businesses or they they go to the world to find financing for the ministry and for the work of the church. The early prophets that went forth did not practice that. In fact, as I told you, if they asked for money they were considered to be a false prophet. That’s the apostle wrote their Dedike and they said if they ask for money they’re false prophets. So he is encouraging Gaius in his hospitality, the love that he had shown was good.

It had been reported and he said,

We ought to receive such, that we might be fellowhelpers of the truth. Now I wrote unto the church: but Diotrephes, who loves to have the preeminence among them, did not receive us (1:8-9).

나는 오늘날 교회가 큰회사나 사업체에 찾아 가거나 그들의 사역 또는 교회의 일을 위하여 재정적 후원을 받기위해 세상에 가서 모금하는방법에 대하여 질문해 봅니다.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이 나갔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것처럼 만일 그들이 금전을 요구했다면 그들은 거짓선지자로 취급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디다케에 기록했으며 만일 그들이 돈을 요구했다면 그들은 거짓선지자로 취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접대하도록 격려했으며 그가 보여준 사랑은 훌륭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1:8-9).

Diotrephes, an interesting character. We look how his sin has been exposed throughout the years. A man who loved the preeminence in the church. He didn’t want to give, you know, any place to anybody else. He wanted the preeminence. So when these prophets would come in, he wouldn’t receive them. In fact, he even refused John the beloved, apostle of the Lord. There are Diotrephes still in the church today, those who are looking for a position for themselves, those that are looking for a place of power and authority, who want preeminence.

디오드레베 는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여러해에 걸쳐서 그의 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왔을때에 그들을 접대하지않았습니다. 사실상 주님의 제자였던 사랑 받은자 요한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디오드레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찾는자들이며 권력과 권위있는 자리를 찾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So John said,

Wherefore, if I come, I will remember his deeds which he doeth, prating against us with malicious words: and not content therewith, neither doth he himself receive the brethren, and he forbids them that would, and casts them out of the church (1:10).

I mean, this guy was a real tyrant. He wouldn't receive these itinerant ministers and if someone in the church would receive them, he'd throw them out of the church.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1:10).

이 사람은 참으로 폭군입니다. 그는 순회하는 사역자들을 영접하지않으며 만일 교회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John's exhortation is

Beloved, follow not that which is evil, but that which is good. And he that doeth good is of God: but he that doeth evil hath not seen God (1:11).

Again here, John puts the emphasis upon what a person is doing. "Be y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f" (James 1:22). "Not he who has the law is justified by the law, but he who does the law is justified by the law" (Galatians 3:11-12).

요한의 권고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1:11).

여기에서 요한은 다시 행함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 (약 1:22).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 3:11-12).

Having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doesn't save you. It's following Him as your Lord that brings salvation. It isn't mouthing the Apostle's Creed that will save you. It's what are you doing. You're doing good, then you're of God, but if you're doing evil, you really don't know God.

Demetrius has a good report of all men (1:12),

And probably this letter was given to Demetrius who was headed that way as a letter of reference from John and he told him to give it to Gaius, and so he is encouraging now, when Demetrius gets there to receive him. "Demetrius has good report of all men,"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수없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따르는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입으로 말하는것으로 구원받을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못합니다.

□□□□□□ □□□□□□, □□□□□□ □□□ □□□□ (1:12a).

아마 요한이 이 편지를 한 증명서로 그 지방에 가는 데메드리오에게 주어 가이오에게 전하라고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그곳에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고 가이오를 격려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못사람에게 좋은 증거를 받았느니라."

and of the truth itself: yes, and we also bear record; and you know that our record is true. Now I had many things to write, but I will not with ink and pen write unto thee: But I trust I shall shortly see thee, and we shall speak face to face (1:12-14).

So as he closed the second epistle, so he closes the third with the anticipation of seeing him, not having to write to him the things that are on his heart.

Peace be to thee. Our friends greet you. Greet the friends [my friends] by name (1:15).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1:12b-14).

그가 두번째 서신을 끝낸것 처럼 세번째 서신도 마음에 있는것을 먹과 붓으로 쓰지 아니하고 보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나의 친구들) 명하에 문안하라 (1:15).